

17/03/05(주) 주일예배 / 제목 :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행 13:21~23) p.210

(21)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성경에는 수백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영적으로 훌륭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다윗은 특별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죽 읽다가 이 본문 말씀에 오면 잠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다윗을 겪어 본 다음에 다윗을 평가하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마음에 맞는다'라는 말은 '마음에 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경험하듯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서로 주고 받는 것이 없어도 잘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참 궁금하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부러운 마음마저 듭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윗사람의 마음에 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정성을 다해 일하는데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니 너무나 부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자신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들고, 그 다음에는 다윗을 들었습니다. 3,000년 이상 되는 구약의 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 혈통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제외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만 언급합니다. 즉 다윗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 길을 닦아 놓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음에 들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윗처럼 똑같은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다윗이고,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윗이 한 일을 우리가 대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특별히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이런 소원은 성경을 읽으면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다윗을 닮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상에 계실 동안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강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마 3:17) 여기에서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내 마음에 맞는 자'란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에도 동일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목표를 세운다는 말은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따라서 목표를 세워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만큼 성공할 확률도 큰 것입니다.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연구한 발표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학생들 가운데 장래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열심히 학업에 전진하는 사람이 전체 학생수의 3%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명 당 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7명은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20년 후를 조사한 결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길 소원한다면 몇 가지 목표를 놓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본론** /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가 수년 간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비록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벌써 그 마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신앙양심이 작동합니다. '난 이래서는 안될 텐데. 이것은 고쳐야 될 텐데. 내가 이것을 안 고치면 신앙생활을 바로 못하는데.' 하고 나름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쳐서 변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혹 교회 안에서 주상복합형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주상복합형 건물이란 주택과 상가를 겸할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전에 갖고 있던 생각이나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진 신앙생활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나 직장생활 하는 것을 보면 누구에게도 안 지겠다는 투지가 강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작한 일에 대해선 끝을 보는 성격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미지근합니다. 이런 미지근한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계 3: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런 신앙태도가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고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습관이 되기 전에 고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좋은 습성과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만일 나쁜 습성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당장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 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적인 가치관도 고쳐야 되겠다고 결심하여야 합니다. 즉,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여전히 나쁜 습성을 가지고 살거나 이중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게 됩니다.

교회 밖이나 교회 안에서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지를 먼저 마음에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숨은 죄도 마찬가지로 변화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음의 숨은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특별히 법에 걸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품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옛습성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은 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 일에 집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질적인 숨은 죄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한지가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언사가 불평하고 원망으로 일삼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변화의 목표를 세우고 바꾸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을 정해놓고 실제로 행동에 옮겨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로, 성장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발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만일 자식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부모에게 근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10년, 20년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 없습니다.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계속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10년 전에 비해서 아직도 자라지 못했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믿음은 계속 발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처음 믿음에 비해 더 뒤쳐진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겠습니까? 믿음을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많이 알도록 하기 위해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어떤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알수록, 성경을 마음에 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너무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어!' 하는 생각이 들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열심만 내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나지 않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동영상 등을 통해 자습해도 얼마든지 말씀의 실력이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인격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신앙인격은 자라지 않아 날마다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인격은 계속 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이 지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내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배워야 되겠다. 내 신앙인격도 키워야 되겠다.'는 성장 목표를 정해 놓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로, 성장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셋째로, 헌신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헌신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매일 신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헨리 나우웬'의 말을 빌리면, 헌신이란 가장 위대한 도전이요,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할 신실한 삶입니다.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당신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만 뒤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신실한 자세가 헌신인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지체를 그분에게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우리는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롬 11:36)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께 드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우리는 허무하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을 사용하되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야 합니다. 내 몸,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재물, 내 모든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에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드리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그리고 실제로 드리면 그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움켜쥐고 실제로 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은 아직 헌신이 안된 사람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쌓아놓은 보화와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성전 짓는데 다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몇 가지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변화의 목표, 성장의 목표, 헌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됩시다.

**요약정리** /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 변화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둘째로, 성장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셋째로, 헌신의 목표를 세우십시오.